

제 색깔 뚜렷한 '집필집단'의 부상

비어있는 대중교양서 분야 등 심도있는 기획 속출

전문 집필집단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활발히 출판활동을 하고 있는 집필집단은 '바테스' '네오/크산티페' '사잇소리' '여울슬' '사랑' '여성을 위한 모임' '과학사랑' 등. 이들은 토론과 집필을 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구성원들이 모여서 주제를 정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결과물을 책으로 출간, 분명한 자기 색깔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판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기초학습과 토론으로 탄탄하게 무장

가장 탄력있게 활동하고 있는 집단 가운데 '바테스'는 「신세대: 우리는 즐거운 것만 아름답다 한다」(제3문학사) 「어머니와 창녀」 「상상력을 죽이면 소프트웨어는 없다」(이상 지인) 세권의 책을 출간하면서 신세대와 페미니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최근에 출간한 「어머니와 창녀」는 페미니즘 시각에서 영화를 분석한 책인데, 편집과 레이아웃이 신선해 화제를 모았다. 이 팀은 예전에 '자포니쿠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어머니와 창녀」 「상상력을 죽이면...」을 출간할 즈음 '종합적 인간의 고대적 전형'이라는 뜻을 가진 '바테스'로 개명했다. 20대 후반의 4명으로 구성된 이 팀의 대표격인 송재희씨(34)는 "집필하는 일보다도 주제를 정하는 일이 더 힘들다. 하나의 주제가 결정되면 몇달동안 계속 토론을 해야 결과물을 엮어낼 수 있다"고 전한다.

'네오/크산티페' 또한 '바테스'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집필집단. 신세대들의 사고·행동양식을 분석한 「신세대 문화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지난해 「그대가 길이 되어 가라」 「누가 뭐라하든 너의 길을 가라」(일거성)를 출간, 신세대들의 문화에 대한 현장탐구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사실상 이 팀은 일거성출판사의 '21세기 출판문화집단'에 속한 기획팀으로 출발해 주로 '원고뱅크' 역할을 했으나 많은 필자들을 확보한 이후부터는 독자적으로 '신세대 문화론'에 다가서고 있다.

한편 여성의 입장과 시각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집단도 있다. '사잇소리' '여울슬' '사랑' '여성을 위한 모임' 등이 그것인데 구성원들 대부분이 '여성학'의 전공과 밀착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잇소리'는 결혼제도의 문제점과 이혼을

기획의 빈곤에 허덕이는

출판계에 전문집필집단의 등장과

활발한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장점은 하나의 주제를

다양하고 깊이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반면 집필자들이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원고의

기술방식과 시각이 균질하지 못한

점도 지적되곤 한다.

야기시킨 사회제도를 살펴보는 「이혼, 또 하나의 선택」(여성사)과 30대 독신여성 1백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엮은 「시집 안간 여자? 시집 못한 여자!」(삼진기획)를 출간한 바 있다. 이 집단의 대표 윤영효씨(30)는 "여성들이 결혼의 중압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면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전한다.

'사랑'(대표 손영주)은 "헤아린다"는 뜻을 가진 소모임. 25~31세의 성관대 문과 출신들 7명으로 구성된 이 모임은 남성, 크게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탐구, 그 결과물을 출판해내고 있다. 특히 맞벌이하는 여성들이 남성과 부대끼면서 겪는 갈등에 대한 돌파구를 모색하는 작업에 중점을 둔다. 손영주씨(31)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만나서 기초학습을 한 다음 아이템을 잡고 곧바로 내부토론에 들어간다"고 작업과정을 설명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남성연구」(나라사랑). 남성을 통해 여성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현재는 해방이후 여성들의 의식발화 측면을 자료화, 분석한 「한국여성사회문화사」(가제)를 준비, 8월 출간을 바라보고 있다.

한편 「일곱가지 여성 콤플렉스」 「일곱가지 남성 콤플렉스」(현암사)를 펴낸 '여성을 위한 모임'(대표 김영란)은 대학에서 여성학 강의를 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여성학에 관한 이론화작업과 대중화작업의 병행을 창작집필의 구체적 모토로 삼고 있다. "이론화작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일반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쉽게 쓰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



신세대와 페미니즘에 관심을 보이는 집필집단 바테스.

또다른 집단 '여울슬'(대표 안혜성)은 3명의 여성학 전공자들이 노동·성·사랑·가족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이다. 안씨는 다른 여성집필모임과의 특별한 정보교환 없이 작업을 진행중이라면서 "국내 문화전반에 걸친 분석과 외국자료를 한데 실어 여성문제에 관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리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여울슬'에서 93년말 신입생들을 겨냥하고 내용은 「새내기를 위한 여성관련 목록」(여성사)은 여성문제를 심층 탐구한 책 소개와 함께 그 해제를 충실하게 수록한 책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창작팀이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 공계쪽에 '과학사랑'(대표 김호)이라는 팀도 있다. 과학사와 국사학을 전공하는 네명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이 팀은 전공을 살려서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아침)을 펴냈다. 김호씨는 "팀원들의 박사과정이 끝나는 대로 헤쳐모여 세미나를 활성화시키고 번역까지 맡을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하나의 주제에 깊이있는 접근 가능

전문 집필집단의 장점은 하나의 주제를 다양하고 깊이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집필자들이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원고의 기술방식과 시각이 균질하지 못한 점도 지적된다. 시사성이 있으면서도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단행본의 완결성에서 본다면 유감스런 부분이다. 또 구성원들의 전공이나 성향이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독자들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구조를 갖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교양서 출판의 비어 있는 부분을 메꾸기 위해 집필집단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출판관계자는 "국내 출판사들은 이제 기획의 '부재'를 실감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 가운데 하나의 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것을 책으로 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이라고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마구잡이식 출판을 부추길 우려만 없다면 아직도 얇은 층을 지닌 각 분야의 좀더 심도있는 대중교양서에 대한 수요는 많기 때문이다.

—배은희 기자

出版企劃翻譯

(중국어서기회 번역전문)

《全分野·全種別》

세계출판정보학회

• 新著原書·뉴프로젝트 多量保有

代表 黃秉國

(前 속대교수·출판사 기획실장·중국어 전공)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0단지 31동

전화: 645-7052